

## News

### ‘은행 문 열리니 우르르’…입소문 탄 적격대출 ‘오픈런’

이데일리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대출 실수요자 사이에 입소문 나면서 빠르게 소진 중… 우리은행, 적격대출 1월 한도 330억원 3일 소진… NH농협은행, 1분기 한도 4일 소진 하나은행, 이달 내 모든 물량 소진 예정… 금리 인상기 들면서 적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이 주효… 시중은행 중 2~3곳 밖에 취급하지 않아 소진율 가속화 영향

### 2000만원 넘게 보너스 나온다…대형은행 성과급 '300%'

아시아경제

시중은행, 올 연초 성과급 대폭 늘어날 전망… 300% 안팎으로 결정되는 분위기… 우리은행 제외 3개 은행이 성과급 규모 결정 및 마무리 단계 전년대비 1.5배 이상 클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등 경영환경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 다만 예대마진 극대화 효과 관련 내부분배 적절성 논란도 제기

### “오스템임플란트 불똥 털라” 은행들 대출·펀드 피해 조기진화

파이낸셜뉴스

은행권,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 관련 모니터링 중… 판매한 공모 펀드 중 약 20여개가 오스템임플란트 편입한 것으로 나타나… 다만 은행별 대출금이 크지 않고 담보가 확실해 여신 재평가 등은 하지 않을 전망… 또한 펀드 투자액 규모도 작아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암호화폐도 받습니다”…가상자산에 빗장 푸는 은행들

조선비즈

유럽 은행들, 디지털 자산을 통한 투자와 암호 화폐 보관 지원 서비스 출시… 고객의 지속적인 기대를 고려해 사업 범위 확대 스페인 BBVA, 디지털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와 구입 및 판매 가능하도록 해… 독일, 암호화폐 지갑 제공 방안 검토 중

### 4년만에 특자전환 자동차보험, 올해도 오를까

국민일보

금융위와 손보업계, 올 1분기 중 회의 열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 및 인상을 논의 예정… 3월 초쯤 소비자들에게 구체적 내용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장 큰 관심은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동차보험 부문 수지가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 11월 말 기준 누적 손해율 78.9~80.5% 불과

### 시장금리 상승에도… 보험사, 예정 이자율 ‘찔끔’ 올라

머니S

시장금리 상승에도 보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0.06%p 인상… 동양생명, 0.09%p 인상 기준금리 인상, 은행 수신금리 상향 대비 인상 폭이 적다는 지적… 여론과 금융당국 시선 의식한 결과라는 비판도 존재

### 뱅킹 이어 동학개미 잡는다…카카오플랫폼 MTS '카카오페이증권'에 쏠리는 눈

테크M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서비스 출시 공식화…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4일부터 예약이벤트 시작 이달 말쯤 국내 주식, 미국 주식, ETF 투자 가능한 MTS 출시 예정… 사전 예약자들에게는 1월 중순부터 신청순에 따라 주식 서비스 순차적 공개

### 증권사, ‘큰손’ 고객 겨냥 지점 고급화 경쟁

조세일보

증권사들, 기존 지점을 통합 이전하거나 주요 거점에 대형 점포를 세워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영업 환경 재편 중 신한금투, 고액자산가 대상 서비스 특화된 청담·광화문 금융센터 신규 개설… 예탁 규모 자체가 큰 만큼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에 유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